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of the Violence
in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Christian Film Crews and Atheistic Film Crews**
–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

이희진 (Hee-Jin Lee)*

이원준 (Won-Jun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that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atheistic film crews in awareness of the violence of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overall job satisfaction(job satisfaction,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In order to do this research, t-test and binary logistics analysis are used with the survey data obtained by 364 film crews of various jobs (production, filming, lighting, editing, planning, scenario, etc.) and staff level (director~third and below). This The main facts revealed by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hristians and atheistic people) in the area of job performance ability(job efficacy, professional capacity)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job environment, bu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of Christian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crews without religion. Second, the awareness of violence in film contents has confirmed that Christians have a much more critical perception than atheistic crews. Criticism of film violence and job satisfaction concluded that it is a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언론정보문화학부 조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hjlee@handong.edu, 주저자

** 창신대학교(Cha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wjlee@cs.ac.kr, 교신저자

2019년 05월 11일 접수, 06월 11일 최종수정, 06월 12일 게재확정

major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between Christian and others with no reli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actively utilize Christian film crews as useful human resources to be used to find way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mfulness of film violence.

Key Words : film crew, violence, consciousness, job performance capacity, job satisfaction

I. 서론

영상매체는 시청각 매체로서 텍스트에 기반을 둔 매체에 비하여 메시지 전달효과가 강력하고 효과적이기에 점점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만, 영상매체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영상콘텐츠 내용 및 연출(표현)방식 등에 따라 영상매체가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영상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폭력성’(violence)이 강한 영상물이 유해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은 다양한 장르영화 및 영상물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폭력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나 TV 방송물 뿐 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에 접속해서도 폭력물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의 주 소비층을 이루는 10-20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출생하여 성장한 세대로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시청에 매우 익숙하고 활발한 세대이다.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연령대인 이들이 폭력적인 장면들이 들어간 영상물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매체를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을 단순히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박찬욱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는 매우 폭력성이 강한 장면들이 연출된 영화들이 꽤 있지만 다수의 작품들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여 명작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 그렇기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측면(폭력성의 내용, 예술성, 연출의 완성도, 시청자의 인지능력, 정서적 성숙 등)에서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 연령 제한 등의 검열 등이

폭력물의 유해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령제 한가대로 콘텐츠의 시청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폭력적인 연출장면을 담은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폭력적인 장면이 줄 수 있는 유해성에 취약한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경험 뿐 만 아니라, 폭력상황을 관찰한 경험 또한 사람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여 왔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제민·김정휘,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해 노출빈도가 높아질수록 폭력적인 행위나 언어를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행행동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실제로 영상매체에서 표현된 폭력성, 비행, 범죄 내용을 모방·학습한 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 또한 심심찮게 접하곤 한다. 실제로 영화 <그놈 목소리>를 모방한 유괴범죄가 일어났고(서울신문, 2007), 미국 덴버시에서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중에 영화속 악당을 모방한 총기난사사건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뉴데일리 2012). 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폭력성 및 공격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을 모방·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특히 취약하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영상물에서 재현된 폭력적인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서, 폭력성에 둔감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력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물 폭력성이 지닌 유해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폭력성이 강한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상제작인력들은 영상콘텐츠의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영상물에 관련한 전문가 집단이다.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상물에서 다룬 폭력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선행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출발이다(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 18; 신명기, 23: 24-25, 24: 12-13, 14: 21; 마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로서 사람들이 어떤 사안 및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사람들의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선행연구자들은 강조한 바 있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제작인력들 중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에 비해 폭력성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은 과연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 비해서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인지, 감정, 의지 등이 종교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성수·장성수, 2010: 34)를 토대로, 기독교인은 무교인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종교적 배경(기독교 유무)과 같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영상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일반인들과는 영상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을 영상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예술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최인이·강윤주, 2010; 하철승, 2014; 이희진, 2018). 영상제작인력들의 정체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한 이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근로자이면서 예술가라는 강한 정체성의 영향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의 구별된 특성을 영상 속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이들의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예: 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등에서도 두 집단 간에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닌 본 연구에서, 만약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상제

작인력으로서의 자질 및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고 자신의 직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오히려 무교인보다 저조할 경우에는, 영상물 폭력성 대처를 위한 유용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활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제작인력의작인력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직무,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 등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판의식이 전문직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며 직업만족과 직무 동기 및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다(Cournoyer, 2000; Rainely, 2009: 301).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예: 전문성, 업무효능감 등) 및 직업에 대한 인식(예: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등도 함께 포함시켜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별 짓는 유의미한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각각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논의점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 비해서 영상 속 폭력성에 대해서 과연 더 비판적인지, 그리고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에서도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는데 유용한 인력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과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술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업무효능감 및 전문성 등 업무수행역량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이 미치는 영향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을 시청 혹은 관람하는 것이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그 연구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연구가 많았다. 폭력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많이 시청한 아동들은 아이들 간에 실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리거나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rabman & Thomas, 1974; Thomas, Horton, Lippincott, & Drabman, 1977). 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물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비행행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수용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우준, 2011; 유상미, 2010). 우형진과 김성벽(2006)은 폭력물에 얼마나 반복되게 노출되었는가에 따라 신체반응을 측정하였는데, 폭력적인 영상물을 과다하게 시청할수록 폭력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결국 폭력에 둔감화 된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로 밝혀내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텔레비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에서 폭력적인 TV장면을 시청한 대상자는 세 가지의 유형의 유해성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첫째로는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두 번째 유해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이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공포심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해성은 폭력적인 행위와 언사에 대하여 점차 둔감해 진다는 것이다(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우형진 · 김성벽, 2006: 191 재인용).

이처럼 그동안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이 영상을 보는 수용자에게 어떠한 유해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용자 입장인 아닌 영상을 만드는 영상제작인력의 입장에서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영상물의 폭력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이 아닌 사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 인력 간에 폭력적인 영상물의 유해성이 대한 인식에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들의 개념적 틀을 구성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근거(rationale)는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자기범주화 이론 그리고 과제가치이론(Wigfield and Eccles, 1990) 등이 될 것이다.

2. 사회정체성 이론

사회정체성 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준·이희진, 2017: 201).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한다(Tajfel, 1978; 장미향·정한기, 2007: 79 재인용). 다양한 집단현상을 사회정체성의 효과로 설명하는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은 사회정체성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집단현상을 설명하고 있다(Tajfel, 1978). 사람들의 자기지각은 개인으로서의 자기지각(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내집단 범주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지각(사회정체성)의 연속선을 따라 변화하는데, 국적, 종교, 성, 학교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 틀이 된다(장미향·정한기, 2007: 79).

사회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월시와 미들턴(Walsh & Middleton, 1984)은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perceptual framework)로,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라 설명하였고(김성수·장성수, 2010: 34), 월터스(Wolters, 1992)는 종교적 신념은 세계관이라 했다. 즉, 종교적 신념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종교는 사회학적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하였다(김성수·장성수, 2010: 34).

“약자에 대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등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조해온 보편적인 가치이다”(이원준·이희진, 2017: 201).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은 부적 상관성이 있고(김성수·장성수(2010: 40), 종교적인 또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타인을 돕는 성향이 높으며(Batson et al., 1985: 198; 김셋별·이호담, 2018: 110 재인용), 선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 및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종교인이 지닌 구별된 특성(salience)을 시사해주고 있다(장훈태, 1991).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계명이며 핵심가치이다(레위기 19:18, 신명기, 23:

24-5, 24: 12-13, 14: 21; 마가복음, 12: 31; 김재민, 2016: 47). 이웃에 대한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을 전제로 한다. 즉, “이웃사랑은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폭력은 타인을 아프게 하고 해친다(김재민, 2016: 47).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영상은 매우 강력한 매체임으로,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많이 노출 될 때, 폭력에 대하여 점차 둔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때, 폭력성을 모방 및 학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바 있다(Bergman & Brismar, 1992; 안미숙, 2000; 유제민 · 김정휘, 2004). 폭력성이 강한 내용이 영상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전달될 때는, 글과 같은 텍스트로 표현될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적인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핵심가치인 기독교를 믿는 영상제작인력의 경우, 영상물에서 표현된 폭력성의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할 것이라 사료된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폭력은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다”(배은주, 2015: 101). 폭력은 반기독교적인, 비인격적인 행위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는 종교적 안녕감과 폭력비행 간에는 부적 상관성(배은주, 2015: 109)이 있고, 기독교인 고등학생의 신앙적 성숙이 친사회적 성향과 높은 상관성이 있지만, 비행과는 부적상관성(김성수 · 장성수, 2010: 40)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김성수 · 장성수, 2010: 34)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 보다 훨씬 더 뚜렷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연구문제1].

영상제작인력들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vs.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빈약하다. 종교 및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사회기능 및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성숙도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정진방, 1997), 부부간 결혼만족 및 효율적 의사소통(박병윤, 2001),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전교식, 2002), 친사회적 행동 등과 정적 관련성(김성수 · 장성수, 2010)이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 및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닌 긍정적 특성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 혹은 무교인 영상제작

인력 간에 어떤 집단이 전문적 역량 및 직업만족 수준이 높을 것인지 혹은 낮을 것인지를 가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설정한 것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전문적 역량과 직업만족 수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영상물 폭력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을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영상제작인력으로서의 전문적 역량 및 자질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적어도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전문적 역량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로 인한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영상물 제작물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상제작인력들은 전문가로서의 분명한 비판의식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과 함께, 자신의 성과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판의식은 전문직인 (professionals)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및 역량이고(Courmoyer & Klein, 2000), 직업만족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동기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Rainely, 2009), 기독교 유무에 따른 영상제작인력의 특성파악에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을 설정하여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적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도를 두 집단 간에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연구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과제가치이론

과제가치이론은 앳킨슨(Atkinson, 1957)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론이다(김선태 · 이호담, 2018: 108). 위스필드와 에클스(Wigfield & Eccles, 1992)는 기대와 가치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과제가치’를 “개인이 특정 과제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중요성, 가치로움, 흥미, 유용성 등을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였다(김셋별·이호담, 2018: 109; 한순미, 2004: 334).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 흥미, 유용성과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과제의 가치를 높게 지각할 수록 과제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및 성취감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김셋별·이호담, 2018; 정혜승, 20005; 한순미, 2004; Bong, 2001; Bures et al., 2002; Miltiadou, 2000).

Eccles(1983)는 성취과제가치(achievement task value)를 정의함에 있어서, 획득/성취 가치(attainment value),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유용성(활용)가치(utility value), 비용(cost)등 네 차원에서 설명하였다(Wigfield & Eccles, 1992: 16). 영상제작인력이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 기독교의 가르침과 가치가 내면화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의 의미와 가치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획득/성취가치 관점에서 보면, 자기도식(self-schema)의 핵심적인 측면(salient aspect)을 승인 또는 비승인 할 수 있는 과제를 맡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은 배려와 보살핌이 전제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핵심가치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둘째, 과제수행을 위한 활동(activity)을 하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 흥미, 관심을 갖게 하는 내재적 가치 또한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활용/유용성 가치는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를 얼마나 유용하게 느끼는지를 의미한다(Wigfield & Eccles, 1992: 16). 폭력성이 강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 제작 업무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활용/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성취가치, 내재가치 그리고 활용/유용성 가치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볼 때,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해 보다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연구질문 1)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rationale)로 제시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하여

[Figure 1]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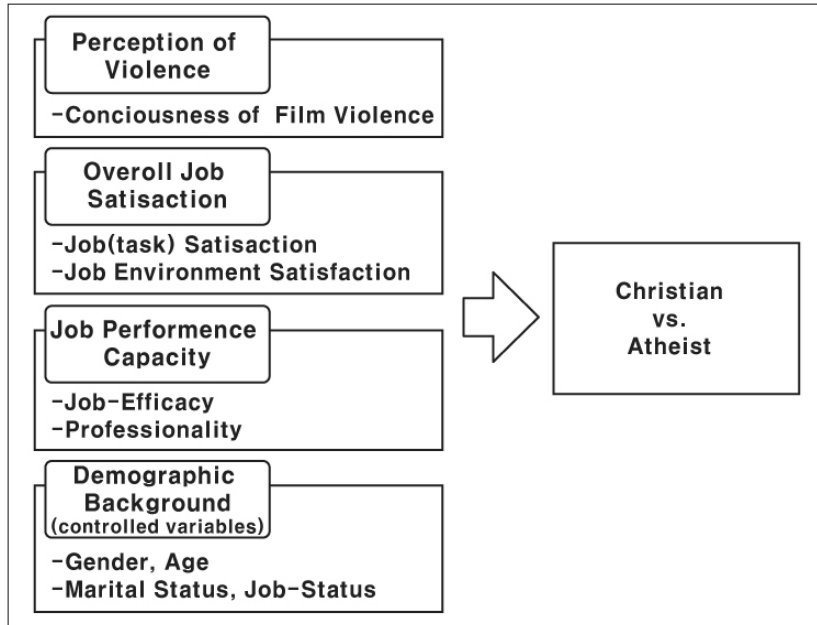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조사(survey)를 위해서 영화 프로듀서조합, 시나리오 작가조합, 촬영감독조합, 조명감독협회, 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필름메이커스 등 대표적인 영화인 유관단체들과 본 연구자가 사전 접촉을 하여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각 단체는 소속회원들에게 본 설문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온라인 서베이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모발일(2)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링크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이희진, 2016: 101; 2018: 287). 약 7개월에 걸쳐서 설문조사(2014.8-2015.2)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 일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전체 응답자(402명) 중에서 종교배경을 검토하여, 믿고 있는 종교가 없는 무교인(240명)과 기독교인(124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최종 표본수는 364명이다.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대한 빈도분석은 [Table 1]과 같다.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기독교인은 124명(34.1%),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무교인’은 240명(65.9%)이다. 남성은 237명(65.1%), 여성은 127명(34.9%)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155명(42.5%)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15명(31.6%), 40대(78명, 21.4%), 50대 이상(16명, 4.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직급을 보면, 감독급(150명, 41.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퍼스트급(89명, 24.5%)이 많다, 세컨드급(61명)은 16.8%, 서드급 이하(64명)는 17.6%로 상대적으로 분포비율이 낮은 편이다¹⁾.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전술한 ‘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은 본 연구모형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이기도 하다.

Table 1. Frequency of Controlled Variables by Group(Christian / Atheists)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Variables	Contents	Frequency	
		N	(%)			N	(%)
Gender	Male	237명	65.1%	Marital Status	Single	271명	74.5%
	Female	127명	32.9%		Married	93명	25.5%
Age	20 -29	115명	31.6%	Job-Status	Director	150명	41.2%
	30-30	155명	42.5%		First	89명	24.5%
	40-49	78명	21.4%		Second	61명	16.8%
	50 -	16명	4.4%		Third -	64명	17.6%

3. 주요 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는 종속변수 한 개(기독교 vs. 무교)와 통제변수(성

1) 영화제작인력의 세부 업무영역은 매우 다양하다(연출, 촬영, 조명, 제작, 미술, 녹음, 분장, 의상 등). 그리고 각 영역마다 경력과 할당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4개의 직급으로 나뉜다. 제일 상위직급은 감독급으로 영화의 감독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미술감독, 조명감독 등도 감독급에 속한다. 감독급 아래에는 어시스턴트들이 있는데 제일 상위 어시스턴트를 퍼스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은 세컨드 그 아래는 서드 혹은 필요에 따라 서드보다 아래에 막내라는 이름으로 스태프를 추가하기도 한다. 감독/퍼스트/세컨드/서드/(막내)의 분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화스태프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공식 지칭용어이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를 포함한 주요 독립변수들(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 유무’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을 구분한 단문항 이항변수(0=무종교인, 1=기독교인)이다.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직급’,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을 참조하였다(이희진, 2016; 2018). 영상물콘텐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척도는 단문항의 5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전술한 측정도구의 주요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α 값)는 [Table. 2]에서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f Instruments(Scales)

Category	Variables	Number of Q.	Score	Main contents and reliability of the scale(Cronbach’s α)
Perception of Violenc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1	1-5	The content of violent film increases people’s violence and copycat crime "
Overall Job Satisfaction	Job-Satisfaction	2	1-5	Assess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y work and the degree of pride in my work (Cronbach’s α =.640)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5	1-5	Assessment of satisfaction with wage and income levels, overall work environment (physical environment), rationality of promotion opportunities, relationships with supervisors, and relationships with peers (Cronbach’s α =.684)
	Job-Efficacy	4	1-5	Satisfaction with job performance ability, advantage about job performance, strength for work (Cronbach’s α =.777)
Job Performance Ability	Professional Capacity	5	0-1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kills, artistry and creativity, theoretical and academic knowledge, common sense and basic literacy, and the ability to read trends at work (Cronbach’s α =.763)
Control Variables	Gender	1	0-1	0=male, 1=female
	Age	1	1-6	1= under 25, 2= 25-29, 3= 30-34, 4= 35-39, 5= 40-49, 6= over 50
	Marital Status	1		0=single, 1=married
	Job- Status	1	1-4	1=director, 2=first, 3=second, 4=third and below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 영상제작 인력들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영상물 폭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직무만족,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주요 변인들(영상물에 대한 폭력인식, 직무만족도,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업무효능감, 전문성)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의 평균비교(t-test)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이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연봉, 결혼상태 그리고 직급 등과 같은 배경변수들을 통제변수군에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응답자들(364명) 중에 20대와 30대가 74.1%에 이르고 40대(21.4%)와 50대 이상(4.4%)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상은 최근 우려되는 영화제작인력들의 현장이탈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271명, 74.5%)이 기혼(93명, 25.5%)보다 약 3배 정도 많은데, 이는 응답자들 중에 약 64%이상이 20대 혹은 30대 연령대인 점을 감안할 때,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124명)중에는 약 36% 이상(44명)이 기혼자이지만, 무교인의 경우는 기혼자가 20%(49명)정도로 기혼자의 비율이 훨씬 낮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제작인력들의 경우에도 기독교인이 무교인에 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봉(지난 3년간의 연봉 평균액수)은 약 1967만원인데, 응답자들 중에 약 66%가 상당한 경력이 요구되는 감독급 및 퍼스트급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영화제작인력들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인(1847만원)에 비해서 무교인(2103만원)의 평균연봉의 액수가 다소 높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2.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두 집단 비교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력 등)의 각 평균값을 살펴보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 두 집단(무교인, 기독교인)간에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3]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

Major Independent variables	Total Group (N=364) Means(SD)	Atheistic Group (N=240) Means(SD)	Christian Group (N=124) Means(SD)	t-value	p-valu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2.4900(1.2210)	2.3900(1.1740)	2.6900(1.2890)	-.3020	.138
Satisfaction of Job(task)	3.7418(.7418)	3.6271(.7919)	3.9637(5.7443)	-3.370	.000
Satisfaction of Job Environment	2.9835(.5927)	2.9258(.61530)	3.0952(.5310)	-.1693	.224
Job -Efficacy	3.9251(.5690)	3.0963(.5840)	3.9617(.5840)	-.0555	.378
Professional Capacity	3.1527(.7505)	3.1183(.7880)	3.2194(.6701)	-1.2820	.201

주요 변인들(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전문성)의 척도(5점 척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업무효능감’(M=3.9251)과 ‘직무만족’(M=3.7418)은 ‘전문성’(M=3.1527)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 ‘직업환경만족’(M=2.9935)은 척도의 중간값(3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M=3.718)에 비해서는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 등 5개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을 t-검증을 통해서 두 집단(무교인 집단, 기독교인 집단) 간에 비교해 보았다. t-검증 결과, ‘직무만족’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무교인 영화제작인력들에 비해 기독교인 영화제작인력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변인들, 즉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직업환경만족, 업무효능감, 그리고 전문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직무만족만이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을 구별짓는 유일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특성이 두 집단을 구별짓는 특성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변수의 평균값을 두 집단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t-검증은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을 구별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를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독립변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해 보면, ‘기독교 유무’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determinants)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3. 기독교 유무 관련 변인파악을 위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기독교 유무’(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determinants)을 찾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목적은 독립변인들의 설명력 자체(베타 계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반적으로 각 개별 독립변인의 적절성 정도를 승산비(odds ratio)를 토대로 검증하는데 더 목적을 둔다(이원준·이희진, 2018). 로지스틱 분석은 승산비(odd ratio)에 근거하여, 개별 독립변수의 척도값이 한단위 증가(또는 감소)할 때, 종속변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다. 즉, 어떤 특성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을 구별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인들을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성에 대한 인식 평가 영역(‘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 파악을 위한 영역(‘직무 만족’, ‘직업환경 만족’), ‘업무수행능력 평가 영역(‘업무효능감’, ‘전문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이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이 두 집단

간 특성을 구별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들 중에는 ‘성별’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영상물 폭력성에 문제의식’, ‘직무만족’과 함께, ‘성별’과 ‘결혼상태’등이 영화제작인력들 중에서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의미있는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 변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상폭력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영화제작인력들이 무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262배씩 증가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job)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한 단위씩 증가할수록, 무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2배(2.079)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Table 4. Binary Logistic Analysis and Marginal Effect Analysis

Category	Variables	Beta-Coefficiency	Standard Deviation	P Value.	Odds Ratio
Perception of Violence	Consciousness of Film Violence	.232	.099	.019	1.262
Overall Job Satisfaction	Job-Satisfaction	.732	.220	.001	2.079
	Job Environment Satisfaction	.188	.237	.428	1.207
Job Performance Ability	Job-Efficacy	-.418	.268	.118	.658
	Professional Capacity	.200	.200	.318	1.221
Demographic Background	Gender	.616	.270	.022	1.852
	Age	.151	.134	.262	1.163
	Marital Status	.630	.306	.040	1.879
	Job- Status	-.008	.163	.961	.992
	Constant	-5.738	1.431	.000	.003

-2 log Likelihood .425.806, Hosmer & Lemeshow test $\chi^2= 10.942$ df=8 P. 205
 Model $\chi^2= 41.1869$ df=9 P <.000, Nagelkerke R^2 .148 분류정확 67.9%

영화제작인력들의 ‘업무효능감’, ‘전문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영역은 무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별 짓는 특성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화제작인력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자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 기독교인과 무교인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성별’과 ‘결혼상태’가 선정되었

는데, 각 변인들의 승산비(odds ratio)를 근거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본 조사 응답자인 영화제작인력들 중에 남성이 아닌 여성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은 약 1.852배 증가하고, 미혼자이 아닌 기혼자일 경우,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약 1.879배 증가한다. ‘성별’과 ‘결혼상태’는 주요 독립변인이raq기보다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전문가로서의 역량, 그리고 직업만족 등이 이들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124명)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240명)에 비해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더 뚜렷하였다(odds, 1.262). 둘째, 직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수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교인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odds, 2.079). 셋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들의 전문성과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에 비교해본 결과,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전문성 및 직무만족이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군(성별, 연령, 결혼상태, 직급)에서는 성별과 결혼상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무교인에 비해서 남성(odds, 1.852)이 많고, 기혼(odds, 1.8979)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기혼율이 더 높은 것은 결혼 및 가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독교 가치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에서 남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힘든 현장작업이 많은 영상제작현장의 특성과, 성별 역할에 대한 규범에서 기독교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영상제작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전문성, 업무효능감)에서는 무교인과 대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교인에 비해서 영상물 폭력

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분명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도 만족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 간에는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직무만족 등)이 있음이 입증되었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의 유해성 문제를 대처하는데 매우 유용한 전문인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 및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업무효능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폭력적인 영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나 최근 한국영화계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면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은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자극적이며 상업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영상들이 제작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고자 기여하는데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뜻이 있는 기독교 영화인들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나 가톨릭영화제, 서울기독교영화제 등을 통하여 사랑과 인간애가 잘 표현된 영화들을 상영하고 사전제작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폭력적인 장면없이 감동과 인간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기여해 나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꼭 기독교 영상콘텐츠가 아닌 기독교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만드는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에서는 영상콘텐츠를 만든다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주력해왔고 이러한 영상콘텐츠들의 주 시청층은 기존의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와 같은 다큐멘터리는 극장에서 4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일반관객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몇몇의 케이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어 폭력에 둔감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증가시킬 위험성은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상콘텐츠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영상물의 폭력성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시사수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영상물의 폭력성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판정과 시청자의 연령에 대한 제한 등을 명기하는 내용 등의 검열장치에만 초점을 둔채,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이 없어왔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기독교계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의식 있는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에 대한 제작지원들도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비영리 기독교 방송인 CGNTV는 일체의 광고 없이 100%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 아직 상당수가 기독교 콘텐츠들이 주를 이루지만 CGNTV에서 몇 년 전 론칭한 온라인 채널인 KNOCK는 젊은 감성으로 종교와 크게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상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작은 발걸음이나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상제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 인력들이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일반인에 대하여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기독교 영화인들이 출연하여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팟캐스트와 같은 활동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독교적 가치인 사랑이 잘 담겨 있어 일반인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폭력적인 영상물의 제작을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일반 관객들이 서서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기 보다 감동이 있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이 앞으로 영상콘텐츠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10대 20대 기독교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영상업계는 많은 부분 기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업계 특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일을 지키며 영상작업을 해나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영상업계 특유의 친목도모적인 분위기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향락적인 문화가 만연한다. 또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 더더욱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등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 영상제작인력들도 많은 갈등의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업무효능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장한 기독교 제작인력들은 영상제작을 꿈꾸는 청년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양질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전문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기독교청년들이 영상제작 업계에 더 많이 진출을 한다면 상업적인 영상물에서도 폭력성이 줄어들고 양질의 영상물이 만들어 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프리랜서신분으로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는

인력이 다수인 영상업계의 특성상 이 기독교 제작인력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독교계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유니언이나 길드와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온라인에서라도 개개별이 등록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과연 영상제작인력들 자신들은 과연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은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보다 영상물 폭력성에 대해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할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개척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내용에서 명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단문항에 의한 전반적인 평가만을 한 것은 명백한 한계점이라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폭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예: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학대 등)과 폭력자와 피해자의 상황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군으로 포함되어 영상제작인력의 기독교 유무를 구분 짓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선택된 ‘결혼상태’와 ‘성별’은 주요 독립변수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간을 구별지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으로 확인된 ‘영상물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이 기독교인의 ‘결혼상태’와 ‘성별’에 의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속연구에서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상태’ 및 ‘성별’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 분석이 용이할 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영상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으로, 영상물 폭력성의 유해성을 감소하는데 어떠한 것이 장애요인들이 되고 있는지,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 연구와 함께 심층 면접에 기초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셋별 · 이호담 (2018). 교육심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기독교청소년의 봉사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 탐색. **신앙과 학문**, 23(3), 99-128.
- [Kim, S. B. & Lee, H. D. (2018). A Literature Review and Reflection on Educational Meaning that Christian Youths Have in Doing Volunteering Works : View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ical Theories. *Faith & Scholarship*, 23(3), 99-128.]
- 김성수 · 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2(2), 22-49
- [Kim, S. S. & Jang, S. S.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Religious Orientations, the Maturity Fai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linquency, Pro-Social Behaviors-Based in High School Christian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nd Learning Consultation*, 2(2), 22-49.]
- 김성일 (2005). 가정폭력, 성역할 학습, 학교폭력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215-241.
- [Kim, S. I. (2005). Relations of Family Violence, Gender Role Socialization, and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215-241.]
- 김우준 (2011). 폭력적 영상물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8(1), 305-326.
- [Kim, W. J. (2011). The Effect of Exposure to Violent Television Programs on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8(1), 305-326.]
- 김재민 (2016).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실천원리 탐색 - 성경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21(3), 37-59.
- [Kim, J. M. (2016). A Study on the Practical Principles of the Crime Victim Policies - Focusing on the Parable of Good Samaritan in the Gospel of Luke -. *Faith & Scholarship*, 21(3), 37-59.]
- 박병운 (2001). 기독교인의 신앙성숙,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Park, B. Y. (2001). *The relation of christian's faith maturity,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배은주 (2015). 기독교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신앙과 학문**, 20(3), 99-122.

- [Bae, E. J. (2015). The Effe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mong Christia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on their Violent Delinquency: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Faith & Scholarship*, 20(3), 99-122.]
- 안미숙 (2000). 학생폭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교육개발**, 122, 54-56.
- [An, M. S. (2000). Student violence, who's the victim and who's the perpetrator?. *Journal of Education Development*, 122, 54-56.]
- 양성만 역. (1992). **창조, 타락, 구속**.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서울: IVP. Ch. All.
- [Yang, S. M. (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Seoul: IVP. Ch. All. Trans. Wolters, A.(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우형진 · 김성벽 (2006). 폭력 영상물 둔감화(desensitization)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방송학보**, 20(5), 187-219.
- [Woo, H. J. & Kim, S. B. (2006). An Experimental Study to the Desensitization of Media Viol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0(5), 187-219.]
- 유상미 (2010).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3(1), 41-71.
- [Yu, S. M. (2010). A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ing on Their Exposure to The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Forum For Youth Culture*, 23(1), 41-71.]
- 유재민 · 김정휘 (2004).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정신병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 [Yu, J. M. & Kim, J. H. (200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SigmaPress.]
- 이상욱 (2014). 영화제작 현장인력의 이직 현상 연구. **씨네포럼**, (18), 197-253.
- [Lee, S. U. (2014). Research of leaving workers of Korea filmmaking industry. *CineForum*, (18), 197-253.]
- 이원준 (2015).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이타행위 노출경험이 기부지속노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책임성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여부 및 주관적 경제형편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181-212.
- [Lee, W. J.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Private Donors' Experience of Being Exposed to Altruistic Action on their Efforts of Continuing Sponsorship

- for th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ristian Religious Affiliation and Subjective Financial statu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4, 181-212.]
- 이원준 · 이희진 (2016). 사회복지조직을 후원하는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인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후원 후 감사증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4), 75-104.
- [Lee, W. J. & Lee, H. J. (2016). Effect of Private Donors' Utility on their Mental Health: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Increasing Gratitude after Don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1(4), 75-104.]
- 이원준 · 이희진 (2017).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91-227.
- [Lee, W. J. & Lee, H.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tudents'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2(3), 191-227.]
- 이원준 · 이희진 (2018). 중국 에이즈 고아들의 자살생각 관련 변인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48, 169-204.
- [Lee, W. J. & Lee, H. J. (2018). A Study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of AIDS orphans in China.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48, 169-204.]
- 이유리 (2002). 기독교사의 신앙성숙 수준과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Lee, Y.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aithfulness and the Satisfaction of Mental Health and Life in Christian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이은정 (2002). 학교체계요인이 집단 따돌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해경험집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Lee, E. J.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chool-system factors on experience of bullying offending : focusing on the bullie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이희진 (2016). 영화제작인력의 직무만족과 관련변인 연구: 업무효능감 및업무자

울성, 의사소통능력의 직간접효과와 경력장애와 직급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Lee, H. J. (201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o film crews'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direct effects of job efficacy and job autonomy, the indirect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 and staff level*. Doctoral Dissertation. Sognag University, Seoul, Korea.]

이희진 (2018). 영화제작 인력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전문성과 업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영화연구**, 76, 273-316.

[Lee, H. J. (2018). The Effect of Film Crews' Artistic Identity on their Professionalism and Job Autonomy. *Film Studies*, 76, 273-316.]

장미향 ·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장훈태 (1991). 기독교소년의 신앙수준과 도덕적 행동: 선행과 비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Jang, H. T. (1991). *Christian youth's religious level and moral behavior: Focused on good deeds and misbehavior*.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전교식 (2002). 기독교신앙 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Jeon, K.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ccording to Christian Faith*.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정진방 (1997). 성숙 신앙인과 기복 신앙인의 스트레스와 갈등 대처 양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Chung, J. B. (1997). *Stress and Conflict Coping Style of the Maturity Faith and the Wish-Fulfillment Faith - focused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정혜승 (2005). 기업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제가치, 학습형태(집합교육, e-Learning, Blended Learning)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Jeong, H. S. (2005). *Effects of Self-Directedness, Task Value, and Learning Types on Learner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조미숙 역. (2005)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Kashani, J. H., & Allan, W. 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서울: 21세기사.
- [Jo, M. S. (2005).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21st Company. Trans. Kashani, J. H., & Allan, W. 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olumbia, Sage Publications.]
- 최인이 · 강윤주 (2010). “영화인”의 영화 “노동자” 되기 -영화산업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13(4), 37-69.
- [Choi, I. Y. & Kang, Y. J. (2010). Articles : Why Do Film Artists Become Film Workers? -A Case of Korean Film Industry Workers Union. *Discourse 201*, 13(4), 37-69.]
- 하철승 (2014). 영화 Production 스태프의 탈 현장 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665-673.
- [Ha, C. S. (2014). Analyses of the Causes that Film Production Staffs Leave Film Sites and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665-673.]
- 하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1), 329-350.
- [Han, S. M.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motivation variables, cognitive strategie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29-350.]
- Ashforth, B. E. and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Atkinson, J. W. (1957). Moticational determinants of risk-taking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4(6, Pt.1). 359-372.
- Batson, C. D., Schoenrade, P. A. and V. Pych (1985). Brotherly love or self-concern? Behavioural consequences of religion.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 185-208.
- Bergman, B. K., and B. G. Brismar (1992). “Can Family Violence be Prevented?”. *Public Health*, 45-52.

- Bong, M. (2001). Role of self-efficacy and task-value in predicting college students' course performance and future enrollment inten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4). 553-570.
- Bures, E. M., Amundsen, C. C. and P. C. Abrami (2002). Motivation to learn via computer conferencing: Exploring how task-specific motivation and CC expectations are related to student acceptance of learning via CC.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7(3). 249-264.
- Cournoyer, D. E. and W. C. Klein (2000).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Allyn and Bacon.
- Drabman, R. S., & Thomas, M. H. (1974). Does media violence increase children's toleration of real-life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0(3), 418-421.
- Eccles et al. (1983) General expectancy-value and developmental model of achievement behaviors. From Spence, J. T. (1983).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W. H. Freeman,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Miltiadou, M. (2000). Motivational constructs as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online classroom. *The Arizona Educ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ERO)*. 13th Conference, Oct. 2000.
-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6).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Vol. 2. Thousands Oaks, CA: Sage.
- Rainey, H. G. (2009).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4th edition, Jossey-Bass.
- Rokeach, M. (1979). From individual to institutional val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alues of science. *Understanding human values*, 47, 70.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and J.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W. G. Austin and S. Worchel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homas, M. H., Horton, R. W., Lippincott, E. C., & Drabman, R. S. (1977). Desensitization to portrayals of real-life aggression as a function of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6), 450-458.
- Walsh, B. J. and J. R. Middleton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Baker.

Wigfield, A. and J. S. Eccle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 265-310.

서울신문 2007. 3. 16일자. “‘그놈 목소리’ 모방범죄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16026006>. (검색일 2019.06.08)

[“‘Voice of Murder’ Copycat crime controversy”, Seoul Sin-Mun (2007.3.16.). Retrieved fr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16026006> (2019.06.08.)]

뉴데일리 2012. 7. 22일자. “배트맨보다..날벼락! 극장서 ‘총기난사’..50여명 사상.”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20/2012072000098.html>. (검색일 2019.06.08)

[“About 50 people were killed and wounded in the shooting at a theater where they were watching the movie Batman.”, NewDaily (2012.7.22.). Retrieved fr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7/20/2012072000098.html> (2019.06.08.)]

논문초록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 -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

이희진 (주저자/한동대학교)

이원준 (교신저자/창신대학교)

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능력(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직업만족(직무만족,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 등에서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종교가 없는 영상제작인력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직종(연출, 촬영, 조명, 편집, 기획, 시나리오 등) 및 직급(감독급-서드이하)의 영상제작인력들을 대상(364명)으로 한 설문조사데이터를 평균비교(t-test)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수행능력 영역(업무효능감, 전문성)과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은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수준은 기독교인들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영상콘텐츠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무교인들에 비해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상콘텐츠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식’과 ‘직무만족’은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구별 지을 수 있는 주요한 특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영상물의 폭력성과 이로 인한 유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안모색을 위해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을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영화제작인력, 폭력성,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직업만족

